

< 역대 정부 집권 후반기 경제 성과의 특징과 원인 >

특징	경제성장률 하락	투자 침체	소비 부진	부동산 가격 상승
	(경제성장률) 전반 후반 7.9% ⇒ 5.9% 9.0% ⇒ 5.4%	(설비투자 증가율) 전반 후반 14.5% ⇒ -0.2% 35.2% ⇒ -0.8%	(민간소비 증가율) 전반 후반 8.1% ⇒ 5.0% 10.0% ⇒ 6.4%	(강남APT가격 상승률) 전반 후반 0.0% ⇒ 5.1% 10.1% ⇒ 28.6%
문민 정부				
국민의 정부				



**원인**

- 집권 후반기의 정치 사회 불안으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
- 선심성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

	투자 심리	소비 심리
	(전경련 경기전망BSI)	(한은 경기전망CSI)
	3년차 4년차	3년차 4년차
문민 정부	113.3 ⇒ 95.1	99.0 ⇒ 86.5
국민의 정부	103.2 ⇒ 95.1	86.5 ⇒ 79.5



**시사점**

정치 사회 불안이 가중되어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경우 경기 하강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



- 정책 과제**
- 경제 불확실성 완화 :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 사회 갈등 해소에 주력
  - 정책 효과 극대화 :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, 보완 정책 마련
  - 경제 정책의 합리성 강화 : 인기영합적 선심성 정책 개발 금지
  - 정책 일관성 확보 : 경제 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서 재경부 권한 강화
  - 기업 투자 활성화 : 준조세 제도 정비, 투자 관련 규제 완화

□ 과거 집권 후반기 2년의 경제 성과 평가-경기둔화와 부동산가 급등

1. 개요

- (평가 배경 및 목표) 과거 ‘문민 정부’ 와 ‘국민의 정부’ 의 집권 前·後 반기 경제 성과 변화에 공통된 특징을 살펴보고, 참여 정부 집권 후반기에 유의해야 할 경제 불안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
  - 평가 배경 :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의 경기 회복세마저 미약한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, 향후 경제의 회복 여부와 경제 운용의 방향성이 중요시 됨
  - 평가 목표 : ‘문민 정부’ 와 ‘국민의 정부’ 의 집권 전반기와 후반기의 경제 성과에 공통적인 특징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, 현 참여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의 방향성을 모색함
- (평가 방법) 과거 ‘문민 정부’ 와 ‘국민의 정부’ 의 집권 기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경제 성과 지표들의 추세 변화를 살펴 봄
  - 기간 구분 : 집권 1~3년차(2~3년차)를 전반기, 4~5년차를 후반기로 구분
    - 이에 따라 문민 정부는 집권 1년차에서 3년차 기간인 1993~1995년의 기간이 전반기로, 4년차에서 5년차인 1996~1997년이 으로 후반기로 구분됨
    -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(집권 1년차)을 제외한 1999~2000년 기간만을 전반기로 정의함
  - 경제 성과 지표 : 성장성 지표 (경제성장률, 설비투자, 건설투자, 민간소비, 정부소비)와, 안정성 지표 (소비자 물가 지수, 공공 서비스 물가지수, 강남 APT 매매 가격)를 살펴 봄

2. 역대 정부의 집권 후반기(4~5년차)의 대외 여건과 경제 성과의 특징

(1) 대외 여건 변화

○ 과거 ‘문민 정부’ 와 ‘국민의 정부’ 의 집권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세계 경제성장률은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나, 환율 상승, 금리 하락, 유가 상승의 공통된 대외 여건 변화 상황에 직면함

- 차이점 : 세계 경제성장률의 경우 ‘문민 정부’ 는 집권 전반기의 3.3%에서 후반기에 4.2%로 상승하였으며, ‘국민의 정부’ 는 전반기의 4.2%에서 후반기에 2.7%로 하락함
  - 한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달리 ‘문민 정부’ 의 수출 증가율은 전반기 18.1%에서 후반기에 4.4%로 둔화되었으며, ‘국민의 정부’ 의 경우 14.3%에서 -2.4%의 감소세로 반전
- 공통점 : 양 정부 모두 집권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환율 상승, 금리 하락, 유가 상승의 여건 변화 추세를 나타냄
  - 문민 정부 : 원/달러 환율이 집권 전반기 792.4원에서 후반기에 879.4원으로 상승하였으며, 금리도 같은 기간 13.1%에서 12.6%,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15.3달러에서 18.4달러로 상승
  - 국민의 정부 : 원/달러 환율이 집권 전반기 1,159.9원에서 후반기에 1,270.8원으로 상승하였으며, 금리도 같은 기간 9.1%에서 6.8%, 두바이유 가격도 배럴당 21.8달러에서 23.4달러로 상승

< 주요 가격 변수 추이 >

	문민 정부		국민의 정부		참여 정부 전반기 2003~05
	전반기	후반기	전반기	후반기	
	1993~95	1996~97	1999~00	2001~02	
세계 경제성장률	3.3	4.2	4.2 (3.7)	2.7	4.5
원/달러 환율	792.4	879.4	1,159.9 (1,238.2)	1,270.8	1,119.9
금리 (회사채 AA-)	13.1	12.6	9.1 (11.1)	6.8	4.9
두바이 유가 (\$/배럴)	15.3	18.4	21.8 (18.6)	23.4	36.6

자료 : IMF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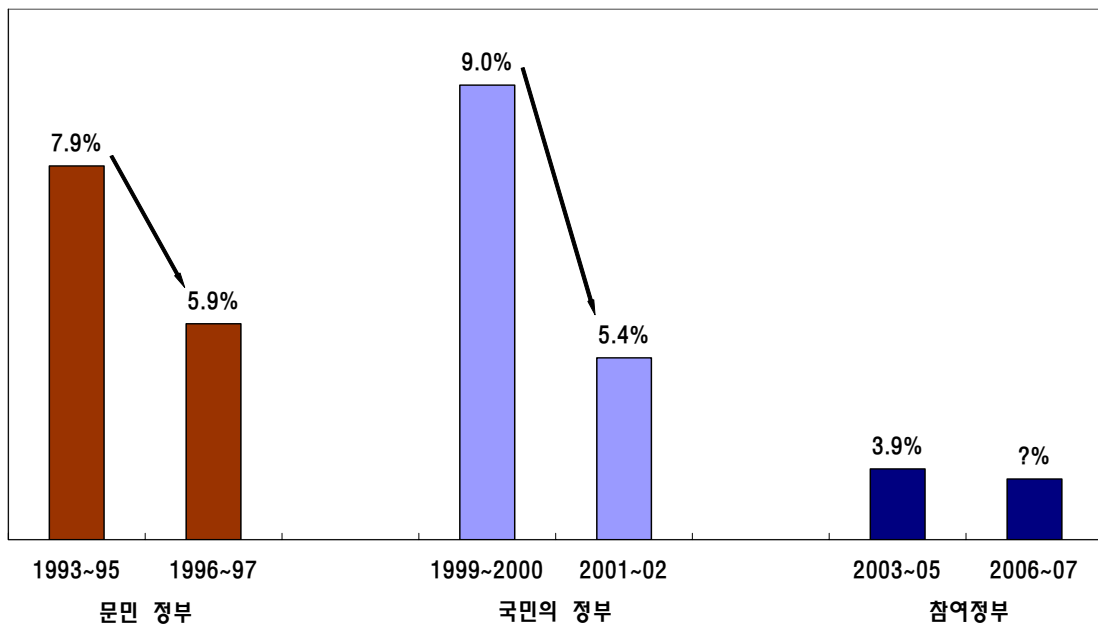
주 : 기간중 평균이며, ( ) 내는 1998~2000년 평균치임.

(2) 역대 정부 집권 후반기 경제 성과의 특징

- 과거 ‘문민 정부’ 와 ‘국민의 정부’ 의 집권 전반기와 후반기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 보면, 경제성장률 하락, 설비투자 부진, 소비 증가율 둔화,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의 공통점이 발견됨
- (집권 4~5년차의 경제성장률 하락) ‘문민 정부’ 와 ‘국민의 정부’ 의 집권 후반기의 경제성장률이 전반기에 비해 하락함
  - ‘문민 정부’ 는 집권 전반기인 1993~1995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.9%에서, 집권 후반기인 1996~1997년의 경제성장률이 5.9%로 2.0%p 하락함
  - 또한 ‘국민의 정부’ 도 집권 전반기인 1999~2000년의 경제성장률이 9.0%에 달했으나, 2001~2002년의 성장률은 이 보다 3.6%p 하락한 5.4%에 불과함
    - 단 집권 전반기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(-6.9%)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전반기(1998~2000년) 3.7%에서 후반기에 5.4%로 상승

< 역대 정부의 집권 전반기와 후반기 성장률 추이 >

(%)



자료 : 한국은행.

주 : 기간중 평균이며, 국민의 정부 전반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함.

- (설비투자 부진) ‘문민 정부’ 와 ‘국민의 정부’ 의 설비투자는 전반기에 호조를 나타냈으나, 후반기에 매우 침체되는 모습을 나타냄
  - 문민 정부 :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반기 연평균 14.5%의 호조를 나타냈으나, 후반기에 -0.2%로 하락함
  - 국민의 정부 : 전반기 35.2% (98년을 포함할 경우 9.4%)에서 후반기에 -0.8%로 급락함
  
- (소비 증가율 둔화) ‘문민 정부’ 와 ‘국민의 정부’ 의 민간소비는 전반기 보다 후반기에 침체되는 모습을 나타냄
  - 문민 정부 :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반기 연평균 8.1%에서 후반기에 5.0%로 3.1%p 하락함
  - 국민의 정부 : 전반기 10.0%에서 후반기에 6.4%로 둔화됨 (단 전반기에 외환 위기 기간인 1998년 -13.4%를 제외)

< 역대 정부의 집권 전반기와 후반기의 내수 부문별 증가율 추이 > (%)

	문민 정부		국민의 정부		참여 정부
	전반기	후반기	전반기	후반기	전반기
	1993~95	1996~97	1999~00	2001~02	2003~05
민간소비	8.1	→ 5.0	10.0 (2.2)	→ 6.4	0.6
정부소비	4.9	→ 5.3	2.3 (2.3)	→ 5.5	3.9
설비투자	14.5	→ -0.2	35.2 (9.4)	→ -0.8	2.6
건설투자	8.9	→ 4.9	-2.2 (-5.6)	→ 5.7	3.1

자료 : 한국은행.

주 : 기간중 평균치이며, ( ) 내는 1998~2000년 평균치임.

○ (부동산 가격 불안) 집권 후반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반기보다 높아지는 특징을 나타냄

- 문민 정부 : 집권 후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이 전반기의 8.9%에서 4.9%로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, 강남 APT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반기의 0.0%에서 후반기에 5.1%로 증가함
- 국민의 정부 : 전반기 10.1% (98년을 포함할 경우 2.3%)에서 후반기에 28.6%로 급증함

○ (물가 안정) 그러나 대체로 집권 후반기의 물가는 공공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임
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‘문민 정부’ 가 집권 전반기 5.2%에서 후반기 4.7%로 안정되었으며, ‘국민의 정부’ ~후반기 상승률이 비록 전반기의 1.6%보다 증가하였지만 3%대로 안정세를 기록함
- 특히 공공 서비스 물가는 ‘문민 정부’ 와 ‘국민의 정부’ 모두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하향 안정세를 나타냄

<b>&lt; 서비스 물가 부문의 범위 &gt;</b>	
- 공공 서비스 :	고속도로통행료, 택시요금, 상·하수도료, 자동차책임보험료, 도시가스, 전기료 등
- 개인 서비스 :	입시학원비, 공동주택관리비, 취업학원비, 국제항공료, 자동차종합보험료, 보육시설이용료, 학교급식비 등

< 역대 정부의 집권 전반기와 후반기 주요 물가 관련 지표 추이 > (%)

	문민 정부		국민의 정부		참여 정부 전반기 2003~05
	전반기	후반기	전반기	후반기	
	1993~95	1996~97	1999~00	2001~02	
강남APT매매가격	0.0	➔ 5.1	10.1 (2.3)	➔ 28.6	8.8
소비자물가	5.2	➔ 4.7	1.6 (3.5)	➔ 3.4	3.3
공공서비스물가	7.4	➔ 5.9	4.7 (6.3)	➔ 3.1	2.7

자료 : 한국은행.

주 : 1) 기간중 평균이며, ( ) 내는 1998~2000년 평균치임  
 2) 강남APT매매가격은 연말 기준 지수 상승률의 평균치임.

3. 경제 성과 부진과 부동산가 상승의 원인

- 역대 정부들의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정치·사회 불안의 심화, 경제 심리 악화, 선심성 공약에 대한 기대감 확산 등이 원인임
- (정치·사회 불안 심화) 역대 정부들의 경우 집권 3~4년차에 발생한 人災형 대형 참사의 발생, 정치권의 갈등과 반목, 각종 비리 사건 등으로 경제 주체들의 실망감이 유발되고 경제 내 불확실성이 증폭됨

< 역대 정부의 집권 3년차 이후 주요 사건 일지 >

집권 년수	문민 정부		국민의 정부	
3년차	199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수대교 붕괴 (1994년 10월)</li> <li>- 삼풍백화점 붕괴</li> <li>- 대구 가스 폭발 참사</li> <li>- 6월 지방선거 연기 문건 파문</li> <li>- 전직 노·전 대통령 구속</li> </ul>	2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현준 게이트</li> <li>- 진승현 게이트</li> </ul>
4년차	199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기부법 통과 강행</li> <li>- 노동법 통과 강행</li> </ul>	200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용호 게이트</li> <li>- DJP 연합 정권 붕괴</li> </ul>
5년차	199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보 사태 관련 정·관계 비리</li> <li>- IMF 위기</li> <li>- 김영삼 대통령 탈당</li> </ul>	200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규선 게이트</li> <li>- 민주당의 정풍 운동</li> <li>- 김대중 대통령 탈당</li> </ul>

자료 : 각 언론사.

- (경제 심리 악화) 이러한 정치·사회 불안은 경제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져,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집권 4년차 경제 심리가 3년차에 비해 모두 하락함
  - 소비 심리 하락 : 한은의 「소비자동향조사」 중 향후경기전망CSI에 대해,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모두 3년차에 비해 4년차의 수치가 떨어짐

- **문민 정부** : 3년차인 1995년의 99.0에서 4년차인 1996년에 86.5로 12.5p 하락
- **국민의 정부** : 3년차인 2000년 86.5에서 집권 4년차인 2001년에 79.5로 7.0p하락함
  
- **기업 투자 심리 하락** : 전경련의 「기업경기실사지수」 중 종합경기전망BSI를 살펴보면, 역시 기업 심리도 3년차에 비해 4년차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
  - **문민 정부** : 3년차인 1995년에 113.3으로 기준치 100을 상회하였으나, 4년차인 1996년에는 95.1로 18.2p 하락함
  - **국민의 정부** : 3년차인 2000년의 103.2에서 집권 4년차인 2001년에 95.1로 8.1p 악화됨
  
- 한편 집권 5년차의 경제 심리의 경우 ‘문민 정부’ 는 외환위기 직전의 경제 불확실성으로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으며, ‘국민의 정부’ 는 소비자 신용 확대, 건설 경기 호황 등에 의한 내수 활황의 영향으로 다시 회복됨
  
- (선심성 공약에 대한 기대감) 그린벨트 해제, 재건축 규제 완화, 도시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규제 완화와 같은 인기영합적 공약 남발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 심리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

< 역대 정부의 집권 3년차 이후 경제 심리 추이 >

		3년차	4년차	5년차
문민 정부	향후경기전망CSI (한은)	99.0	<b>86.5</b>	65.3
	경기전망BSI (전경련)	113.3	<b>95.1</b>	80.4
국민의 정부	향후경기전망CSI (한은)	86.5	<b>79.5</b>	113.0
	경기전망BSI (전경련)	103.2	<b>95.1</b>	117.2

자료 : 한국은행, 전국경제인연합회.

주 : 한은의 향후경기전망CSI는 분기 자료의 연평균치이며, 전경련의 경기전망BSI는 월간 자료의 연평균임.



#### 4. 시사점과 대응 방안

- (시사점) 이전 두 정부의 집권 후반기 경제 성과는 전반기에 비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
  - 특히 후반기 경제 성과 부진은 집권 3년차 이후에 집중된 정치·사회 불안 현상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(향후 정책 방향) 따라서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 완화, 정책 효과 극대화, 경제 정책의 합리성 강화, 정책 일관성 확보,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경제 침체 가능성을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임
  - 경제 불확실성 완화 : 정부의 정책 추진에 앞서 계층간,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사회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
    - 특히 정치권도 당리당략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치·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임
  - 정책 효과 극대화 :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로 했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완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함
  - 경제 정책의 합리성 강화 : 선심성 정책 개발을 금지하여 경제 정책이 인기영합적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  - 정책 일관성 확보 : 경제 정책의 수립,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주무 부서인 재정부의 정책 조율 기능의 대폭 강화가 필요함
  - 기업 투자 활성화 : 준조세 제도 정비,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적극적인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이 시급함

주간 경제 동향

□ 실물 동향 : 수출 경기 둔화 지속

○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.9% 증가한 270.4억 달러, 수입은 13.0% 증가한 257.5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12.9억 달러를 기록함

자동차, 반도체 부문만이 수출 경기를 지탱, 對中 수출 비중도 하락

- 수출 품목별로는 자동차, 반도체가 전년 수준인 10%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, 가전, 컴퓨터, 석유류가 작년에 이어 침체가 지속중인 가운데, 유화, 무선통신기기, 철강 부문마저 감소세로 돌아섬

-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은 작년 24.4%에서 올해 3월에 13.3% (1/4분기에 13.1%)에 그쳐, 총수출 대비 중국 수출 비중도 작년 21.8%에서 올해 1/4분기 21.0%로 낮아짐

향후 대외 수요 감소,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 경기 둔화 불가피

- 앞으로도美中 경제의 불확실성, 고유가, 환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수출 경기 둔화와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(무역수지 흑자폭은 작년 1/4분기 62억 달러에서 올해 1/4분기 22억 달러로 크게 축소)

< 주요 실물 경제 지표 >

(전년동기대비, %)

		2004	2005				2006				
			연간	1/4	2/4	3/4	4/4	1월	2월	3월	
경기	경제성장률	4.7	4.0	2.7(0.5)	3.2(1.4)	4.5(1.6)	5.3(1.6)	-	-	-	
	수요	소비재판매	-0.8	3.9	1.2	3.4	4.4	6.8	8.9	1.1	-
		설비투자추계	1.4	3.2	3.9	1.4	1.1	7.0	0.1	2.3	-
		건설수주	-3.9	9.5	22.3	38.5	15.8	-17.9	10.9	22.2	-
		수출	31.0	12.0	12.7	9.0	15.4	11.4	3.6	16.8	12.9
	공급	산업생산	10.2	6.3	3.5	3.5	7.1	10.3	6.4	20.0	-
		취업자수(만명)	2,256	2,286	2,225	2,313	2,303	2,303	2,247	2,241	-
		실업률(%)	3.7	3.7	4.2	3.7	3.6	3.5	3.7	4.1	-
수입		25.5	16.4	14.8	15.2	21.1	14.6	17.3	27.2	13.0	
대외 거래	경상수지(억\$)	282	166	59	26	27	54	1	-8	-	
	무역수지(억\$)	294	232	62	60	49	61	5	4	13	
물가	소비자물가	3.6	3.2	3.2	3.0	2.3	2.5	2.8	2.3	2.0	
	생활물가	4.9	4.1	4.7	4.5	3.4	3.4	3.8	3.3	2.6	

주 : 경제성장률 ( )안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증가율이며,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통계 지표임

□ 금융 동향 : 원/달러 환율 960원대 붕괴

○ (해외 금융시장) 유로 지역 경기 지표 호조로 유로화 대폭 강세

- 유로 지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표로 확인되면서 유로화 대폭 강세
- 금리: 유럽·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, 유가·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대폭 상승 (미국 채 10년물: 4.67%→4.84%)
  - 환율: 유로화는 유로지역 2월 실업률의 예상치 하회(8.3%→8.2%, 예상: 8.3%) 및 ECB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대폭 강세 (\$/€: 1.2036→1.2289, ¥/\$: 117.46→117.42)

○ (국내 금융시장) 대규모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 유입으로 환율 급락

-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투자 자금이 급락하며 960원대 붕괴
- 주가: 국제 유가 급등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대폭 상승 (1,321.2→1,388.8)
  - 금리: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한은의 적극적 금리 인상 시사 등으로 소폭 상승 (국고채 3년 수익률, 4.94%→4.98%)
  - 환율: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시장 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원/달러 환율 급락 (전주 말 979.1→957.3)

○ (전망) 국제 유가 급등세 등으로 주가 조정 예상

< 주요 금융 지표 >

		2004	2005				2006	
			1/4	2/4	3/4	4/4	3.24	4.5
국내	거래소 주가	895.9	965.7	1,008.2	1,221.0	1,379.4	1,321.2	<b>1,388.8</b>
	국고채3년(%)	3.28	3.91	4.02	4.60	5.08	4.94	<b>4.98</b>
	원/달러	1,035.1	1,015.5	1,025.4	1,041.1	1,011.6	979.1	<b>957.3</b>
해외	DOW	10,783	10,504	10,275	10,569	10,718	11,280	<b>11,240</b>
	Nikkei	11,489	11,669	11,584	13,574	16,111	16,561	<b>17,244</b>
	미국채10년(%)	4.22	4.48	3.91	4.32	4.39	4.67	<b>4.84</b>
	일본채10년(%)	1.44	1.33	1.17	1.48	1.48	1.74	<b>1.84</b>
	달러/유로	1.3556	1.2964	1.2108	1.2026	1.1849	1.2036	<b>1.2289</b>
	엔/달러	102.56	107.15	110.92	113.51	117.75	117.46	<b>117.42</b>
	두바이(\$/배럴)	33.11	45.91	52.09	56.32	53.19	57.40	<b>60.77</b>